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체제...

사재로 지분 매입해 경영권 강화 ... 현재 198만주에 지분율 5.9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사재를 털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주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이 주가 하락이나 손실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사재를 털거나 금융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기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권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2월16일 발표했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2월 말부터 총 5만314주를 장내 매입했으며 2만781주는 사재로, 나머지 2만953주는 주식담보대출금으로 구입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총 198만5286주로 지분율 5.93%에 달한다.

금호석유화학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 박찬구 회장이 금융권에서 주식담보대출금 1000억~1500억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담보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대적 M&A(인수합병)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매출이 6조4573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475억3000만원으로 39.1%, 당기순이익은 5354억1200만원으로 5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6>